

CID폰트 전격 출시

서체공급 체계 일대혁신 이룬다

서체회사의 새로운 시장 욕구와 인쇄회사의 PDF 활용 욕구 맞아 떨어

2001년이래 지속되고 있는 인쇄회사의 불황, 특히 출력용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의 불황은 이들을 주 고객으로 하고 있는 서체회사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쳤다.

활황의 시대에서는 디자이너들의 요구가 없더라도 신서체를 알아서 주문하던 출력회사들이 어려운 경제 여건과 디자이너들의 새로운 서체 사용에 대한 욕구를 수정시킬 만한 대형 종합인쇄사의 등장으로 신서체 구입을 자제하면서, 더 이상 출력용 시장에 매달리기에는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맥 디자이너들에 대한 무상에 가까운 화면용 폰트의 유상공급실시와 출력업체에 대한 단속의 강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중고 폰트 패키지 판매도 이러한 흐름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서체 보호를 이유로 출시가 미뤄지던 CID(Character Identify keyword font) 및 CID PS(PostScript) 폰트가 최근 두산동아 인쇄BU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납품된 CID 폰트는 윤디자인연구소 284종, 산돌글자은행 205종, 세일포트마 148종, 한글컴퓨터그래피 139종 등 4개회사 제품 776종으로 한양정보통신과 아시아폰트를 제외한 상업용 인쇄에서 사용빈도수가 높은 상당수의 폰트가 포함되어 있다. 총 776종의 CID 및 CID PS 서체가 납품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서체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PDF를 이용한 워크플로우 등 각종 작업의 실용화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출력용 서체 시장과 비교했을 때 화면용 폰트의 정상 가격 판매라든지 불법 폰트 단속은 그 한계가 있었다.

새로운 타입의 서체가 필요했던 것은 인쇄회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인쇄회사로서는 이미지 해상도가 200dpi로 묶여 있긴 했지만 워크플로우의 필수요소라 할 수 있는 PDF 기반의 문서양식을 Invader와 ez PDF Gate를 통해 맞 본 상태였으며, 일부 회사는 모 인쇄기 판매 회

사의 권유대로 이미지 해상도가 풀리는 초기 버전의 맵점을 이용해 값비싼 서체 비용을 해결하고 있던 터였다.

하지만 초창기 이미지 해상도의 제약이 풀리는 PDF 버전의 경우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엔 이를 단속하려는 서체회사와의 마찰이 불가피했다.

아울러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과 거래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우리와 출력 환경이 다른 외국의 PDF



출력 요구에 곤란을 겪고 있던 터였다.

국내 첫 번째 CID 및 CID PS 폰트 납품 회사가 두산동아 인쇄 BU로 결정된 것도 이러한 국내 상황과 맞아떨어진 것이다.

국내 어느 기업보다 활발하게 해외 업체와 교류하고 있는 두산동아의 경우 이미 PDF 문서 파일에 대한 편리성을 잘 알고 있는 상태였으며, 워크플로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지난 2003년 초부터 워크플로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오던 터였다.

여기에 서체회사 역시 중소인쇄회사 보다는 규모가 있는 회사와의 거래가 구미가 당기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하지만 계획대로라면 지난해에 납품되었어야 했을 CID 및 CID PS 폰트는 엉뚱하게도 CTP 장비의 편칭 시스템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어졌다.

워크플로우 활용한 서체 보호 문제 완벽하게 해결

CTP 편칭 시스템의 해결 이후에 폰트회사와 두산동아 및 워크플로우 공급회사의 가장 큰 논란은 CID 및 CID PS 폰트의 보호 문제로 직결됐다. 서구 사회와 달리 상대적으로 떨어진 국내 지적 재산권 문제가 잘못될 경우 서체시장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는 긴박함 등이 CID 및 CID PS 폰트의 출시를 가로막았던 것이다.

폰트 보호가 쉽지 않은 CID 폰트의 속성상 보안은 불가피한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두산동아 인쇄BU에 납품되는 서체 이전까지 보안문제가 해결된 CID 폰트는 없었다.

지난 97년부터 CID type의 폰트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아시아폰트의 경우도 아직까지 보안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고객의 양심에 호소하거나, 출력을 좀더 원활하게 도

와주는 CID PS 서체로 영업을 하고 있을 정도이다.

금번에 납품된 776종의 CID 및 CID PS 폰트도 폰트자체에는 보안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다만 776종의 폰트가 Acrobat Distiller를 통해 PDF 문서화되는 과정에서 암호화되고 암호화된 문서가 Rip으로 출력되기 직전에 정상적인 폰트로 다시금 풀리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아울러 철저한 보안을 위해 화면 상에서 보여지는 폰트도 해당 폰트가 원래 가지고 있는 모양이 아닌 별도 문양의 폰트로 보여짐으로써 보안 문제에 만전을 기했다.

계약 기간 동안 A/S 및 신서체 무상제공

두산동아에 납품된 776종의 서체는 여러모로 국내에 납품되어 있는 서체와 남다른 면이 많다.

일반적으로 출력실에서 사용되는



서체는 사용료가 일괄 지급되는 반면 두산동아에 납품된 서체는 1년 단위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계약을 연장하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체 라이선스의 개념이 강하다.

대략 1억원에 가까운 사용료가 지불되는데, 기존 CTP를 구입했을 때 필요로 하는 금액만큼의 서체 비용이 1년 사용료로 지불되는 관계로 특전 아닌 특전이 있다.

우선 계약 기간 동안 두산 인쇄BU는 무료 A/S를 받게된다. 설사 계약 기간이 10년이 넘어서더라도 계약이 진행중이라면 무상 A/S를 받게 된다.

Muiti Rip 개념도 가능해 진다. 기존 서체의 경우 One Font - One Rip 개념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두산동아 인쇄BU에서는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두산동아 본사와 두산 동아 인쇄BU가 위치한 독산동 본사, 안산 공장 등 3곳에 한 별씩 단 3벌의 서체만 납품된다. 그리고 공장 내에서는 단 하나의 서체만으로 Muiti Rip 개념을 이용해, 출력기나 편집 소프트웨어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Muiti Rip 개념은 향후 회사가 별도의 출력기나 편집 소프트웨어를

들여놓아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서체 또한 무상으로 제공된다. 당장에는 776종만 납품됐지만 이후에 출시되는 서체도 무상으로 제공 받게 된다. 또한 윤디자인연구소의 경우 이번에 납품된 서체가 284종으로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서체 353종에서 다수의 서체가 빠져 있다. 납품에서 제외된 69종의 서체는 판권은 윤디자인연구소가 가지고 있지만 개발은 별도의 회사가 개발한 서체들인데, 향후 개발 회사가 허락할 경우 나머지 69종의 서체도 납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CID 폰트 납품 따라 워크플로우 가능해져

두산동아 인쇄BU에 대한 CID 및 CID PS의 납품 건은 단순히 특정 회사에 한 건의 서체가 납품되었다는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CID 및 CID PS 폰트가 납품됨으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워크플로우의 활용이다. 애초 워크플로우 활용을 목적으로 납품된 CID 및 CID PS 폰트이지만 4월 현재까지 두산동아 인쇄BU에는 워크플로우가 납품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4월 현재까지 워크플로우 시스템이 계약되진 않았지만 CID 및 CID PS 폰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PDF 환경은 조성됐다.

지난 1년여간을 끌어온 워크플로우 도입이 무산되긴 했지만 폰트 문제가 해결된 마당에 워크플로우 도입이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

또 다른 CID 및 CID PS 폰트 수요의 발생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776종의 CID 및 CID PS 서체가 당장에는 두산동아 인쇄BU에서만 활용되겠지만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새로운 영업 활로를 찾고자 하는 서체회사와 워크플

로우 및 PDF 활용을 위해 CID 및 CID PS 폰트를 원하는 인쇄 회사의 요구가 맞물리면 향후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탓이다.

금번 CID 및 CID PS 폰트 및 워크플로우 납품 건을 주도한 세일포트마 홍기익 이사는 "가능하다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이라도 중소 인쇄회사에도 CID 및 CID PS 폰트를 공급하고 싶다"며 CID 및 CID PS의 본격적인 시장 출시를 예고했다. 홍이사는 이와 관련 "두산동아에서 부담하는 만큼의 사용료는 중소 인쇄회사 및 출력 업체에는 다소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출력 빈도수에 따라 별도의 가격이 책정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서체시장 흐름 바뀔 것

두산동아 인쇄BU 납품에 동의한 CID 및 CID PS 폰트를 출시한 회사는 앞서도 언급한대로 4개회사이다. 하지만 향후 CID 및 CID PS 폰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경우 또 다른 회사의 CID 및 CID PS 폰트 출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두산동아를 통해 서체 보안 문제만 확인된다면 공급처인 서체 제작사와 수요처인 인쇄 및 출력업체 간의 사용 가격에 대한 갈등은 있겠지만 인쇄회사의 중 대형화 추세와 맞물려 향후 출력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시장 흐름만 형성된다면 아직까지 CID Type의 서체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회사들도 CID 및 CID PS 서체 개발에 매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 흐름을 가능케 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협 가능한 합리적인 라이선스 가격이 될 것이다.

(이홍우 기자)